

남양·남진건설 안전관리 ‘우수업체’ 선정

국토부, 지난해 공공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공개
안전점검·안전교육·재해예방·안전시스템 운영 여부 등 실시

호남 중견기업인 남양건설(주)과 남진건설(주)이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공공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나란히 우수업체로 선정돼 주목을 끌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교통사고·산재 사망자수 절반 줄이기) 실천 과제로 한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 및 공개하고, 자

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평가항목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활동, 안전교육, 재해예방 활동, 안전시스템 운영 여부 등이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176개 현장에 참여한 213개 발주청·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안전사고 경각심 제고를 위해 평가 기간 내 건설사고 사망자 2명 발생 시 1등급씩 하향했다.

그 결과 발주청 우수기관으로는 서울

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가 선정됐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우수업체에는 (주)건설사사무소건설원엔지니어링, 경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동남이앤씨(주), 동부엔지니어링,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수성엔지니어링 등 6곳이다.

시공자 우수업체는 남양건설(주)과 남진건설(주)을 비롯해 (주)신세계토건, 금호산업, 대림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동아건설산업, 신동아건설(주),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케이씨씨건설, 한진중공업, 화성산업(주) 등 12곳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평가제도 시행 후 4년간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분석한 결과, 평가 참여 대상에 포함된 횟수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준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를 2회 이상 받은 대상자의 평균

점수가 처음 평가를 실시한 대상자보다 높게 나왔으며, 평가 실시 횟수가 증가할수록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이다.

이는 ▲평가제도 관심도 향상 ▲평가 지표 이해도 향상 ▲참여자 개선타입 인지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측은 분석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돼야 한다”면서 “2021년에는 평가지표 간소화, 사고사망자 지표 반영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준평가 결과와 제도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은성기자

“새해 지역경제 활력 찾는데 힘 모으자”

정창선 광주상의 회장 신년사

정창선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올해는 광주·전남의 지자체, 경제인, 시민들이 모두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돌이켜 보면 큰 위기는 언제나 큰 변화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었다”며 “우리 모두가 상생하는 마음으로 지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먼저 코로나19의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올해 각종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도시철도 2호선이 건설 중이고, 광주글로벌모터스 설립으로 올 하반기에는 광주형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리게 될 것”이라며 “특히 인공지능 중심도시와 국내 최초의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건설을 위한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회장은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띌 수 있도록 최신 정보제공 및 근로자 비대면 교육 등을 확대해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각 산업 분야별 규제 완화 및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스타트업 기업의 성



장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정 회장은 지난 1974년부터 매년 연초에 개최해 온 신년인사회가 올해 취소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

까움을 표시했다.

정 회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지역경제인이 함께 모여 새 출발을 다짐하는 ‘신년인사회’가 열리지 못하게 돼 송구스럽다”며 “다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면서 신축년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씩 생기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하지만 갑작스러운 위기에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시민 그리고 의료진들의 헌신은 우리를 세계의 모범이 되는 국민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회장은 끝으로 “광주상의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역 기업의 지속 성장을 돕고,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지역민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은성기자

광주·전남 장바구니 물가 ‘급등’

집밥수요로 농축수산물 가격 올라…석유류·공공서비스 하락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연간 소비자물가가 0%대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실생활에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는 전년과 비교해 크게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호남지방통계청의 ‘2020년 12월 및 연간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4.93으로 전년 동월 대비 0.4% 상승했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0.2%에 이어 2년 연속으로 0%대를 기록한 것으로, 채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도 2019년과 2020년 각각 0.1%, 0.1%에 머물며 저물가 흐름이 지속됐다.

지난해 초부터 이어진 저유가 영향으로 공업제품은 1년 전보다 0.2% 하락했으며, 이중 경유와 휘발유 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11.0%, 5.7% 감소했다.

공공서비스는 코로나19 관련 정책 지원과 교육 분야 공공지원 등의 영향으로

2.7% 하락했다.

반면,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먹거리 물가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집밥 수요 증가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4% 상승했으며, 최근 7년 사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여름 한반도를 강타한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의 영향과 재난지원금으로 육류소비가 늘어난 것이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면대면 접촉이 잦은 외식 소비가 줄어든 것도 물가 상승에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배추(50.9%)와 양파(53.3%), 파(20.9%) 등 채소류에서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돼지고기(5.7%)와 국산쇠고기(3.6%), 수입쇠고기(4.8%) 등 육류에서도 가격이 올랐다.

지난해 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105.71)도 전년 대비 0.7% 상승하며, 광주와 마찬가지로 2년 연속 0%대 저물가 기조가 유지됐다.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0.7% 상승했으며, 신선식품지수는 9.9% 급증했다.

품목별로 농축수산물은 돼지고기와 고등어, 국산쇠고기, 배추 등이 올라 전년 대비 7.4% 상승했으며, 공업제품과 공공서비스는 각각 0.4%, 2.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환준기자



‘신축년’ 흰 소 케이크 소개합니다

신세계백화점이 ‘흰 소의 해’ 신축년을 맞아 신세계푸드의 베이커리 매장 ‘더 메나쥬리’에서 소 모양 케이크와 컵케이크, 마카롱 등을 선보인다. 사진은 3일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 더 메나쥬리 매장에서 신축년 신상품을 소개하는 모습. <신세계백화점 제공>

이재로 LH 광주전남본부장 취임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3대 광주전남지역본부장에 이재로(55·사진) 본부장이 새로 취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본부장은 4일 LH 광주전남 사옥에서 취임식을 가진 후,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다.

화순이 고향인 이 본부장은 전대사대 부고와 전남대를 졸업한 후 대한주택공사에 입사해 기획조정실, 사업계획실, 공공주택 기획처 등 공사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공공주택기획처장, 주택사업심의부장, 행복주택사업부장 등을 역임한 주택분야 전문가로서의 식견과 기획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본부장은 “지난 2019년도에 광주전남 지역본부 건설사업단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 자리 창출 및 국민 주거 안정 등 정부정책 수행을 위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러 “주택품질 및 주거복지 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등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은성기자

휘발윳값 상승세…광주 ㄹ 당 1천416원

광주·전남지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1천400원 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광주지역 리터당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6.0원 오른 1천416.0원으로 집계됐다.

전남지역도 ㄹ 당 21.0원 오른 1천418.0원으로 판매됐다.

상표별로 광주 남구 지에스칼텍스(주) 봉선주유소 가격이 ㄹ 당 평균 1천505.0원으로 가장 비쌌고, 광산구 마트몰(주)송원지점이 1천298.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전국에서 휘발유가 가장 비싼 서울 지역의 휘발유 가격은 전국 평균보다 75.0원 높은 ㄹ 당 1천510.0원 수준으로, 최저가 지역인 경남은 평균보다 19.0원 낮은 1천407.0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최환준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http://www.kukje9.co.kr

“맛과 멋을 새롭게”
출장뷔페 전문외식산업

자매회사:제사나라 062)527-0044/011-602-2278

야외 결혼식

칠순잔치

체육대회

야유회

국제외식산업(주) 문의.062)262-2278/011-602-2278

CMYK